

**2017년 이단경계주간(10.30-11.4)
기도회 및 주일 예배 자료집**



**제 32회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하나님의 전신감주를 입으라(엡6:10)

감독회장 전 명 구

주님의 이름으로 목양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목양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역자들과 성도님들께 늘라운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며 정통교회보다 더 공격적으로 전도하며 그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5-2015 종교인 변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개신교가 대한민국 1등 종교가 되었습니다. 844만여 명에서 967만여 명으로 123만여 명이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지만, 크게 반기는 분위기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세가 줄어들고 있으며, 대부분 교인들의 분위기가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놓고 다양한 분석과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스스로 개신교라고 대답했다고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타당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리교회는 지난 8년간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8년간 꾸준히 교세를 늘려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신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늘어났다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분석일 뿐이지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단으로 인하여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 추락과 함께 개체교회들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다양한 피해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단경계주간(10월30일-11월4일)과 이어진 주일예배(11월5일)를 통하여 이단의 실체와 포교 방법, 결의된 이단과 예의 주시해야 할 단체, 대학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 소개, 대처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만들어내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체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집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각 연회별, 권역별 이단경계세미나와 이단 상담사 배출을 위하여 감리회 이단상담사 훈련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이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며, 배출된 상담사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를 지키며 이단 피해를 예방, 대처, 치유, 회복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단에서 돌아온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단들은 항상 호심탐탐 노리고 있으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하나님의 전신감주를 입고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이 작업에 함께하는 목회자와 신학교수, 그리고 교육국 총무와 실무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아주 중요합니다.

- 찬송: 521장(구원으로 인도하는)
- 성경: 로마서 10: 9-10

이단의 역사를 보면 이단들은 대개 구원론이나 종말론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만 건전하지 못한 구원론이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우리 감리교는 가장 성경적인 구원론을 믿고 있지요. 그럼 먼저 성경에 나타난 구원론을 살펴보고 존 웨슬리가 정립한 감리교단의 구원론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구원론을 제시하는 다양한 본문들이 있지만 롬 10:9-10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9절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명료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죄 없이 죽으셨고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절차에 대하여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 마음으로 믿는 것 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내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을 영접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에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영접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은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가 일평생 성화의 길을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흔히 웨슬리적 구원론을 7단계로 설명하면, 선행은총, 회개, 거듭남, 중생, 성화, 완전, 영화입니다. 선행은총이란 성령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깨우치는 것을 의미하고 회개란 자유의지에 의하여 그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칭의 즉 구원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웨슬리가 중생을 (Regeneration) 칭의의 다음 단계로 설명하는 이유는 그것이 칭의와 거의 동시에 발생하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화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생의 시작과 더불어 성화의 길을 가는데 성화를 위해서 웨슬리는 다양한 은혜의 방편 즉 영적 훈련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길을 지속하면 완전이 이르게 됩니다. 그 완전이란 죄가 없는 절대적 의미의 완전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영화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얼마 전 사명감을 가지고 이단을 연구하는 우리교단 목사님을 통해 이단의 결정적 약점은 성화의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남겨준 감리교단의 구원론은 이단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한줄 기도

주님! 저희가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을 잘 실천해서 이단의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잡게 하소서.

구원론 비교

이단 혹은 사이비로 규정된 우리 주변에서의 문제시되는 단체들은 정통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에 같은 성경을 갖고 구원에 관한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정통 기독교를 기준하여 구원 교리와 전혀 맞지 않기에 ‘유사기독교종파’로 분류된다.

대개 이단으로 규정되는 주된 요인이 바로 ‘교리’에 관한 부분이다.

정통 기독교 신앙의 근본교리(구원교리)는 로마서 3장 24절을 근거로 한 ‘이신칭의(以信稱義, justification by faith)’가 됩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다른 말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뜻이다.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확실한 길이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만한 것이 없으며 또한 성경에 나타 난 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 감리교회는 기독교의 근본교리인 이 ‘이신칭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경계해야 하는 대표 5개 이단단체들의 교리서들과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 : ‘**신탄, 실상**’이란 교리서가 있으며 이들은 계시록의 144,000명을 근거로 제한된 수의 구원을 주장하고, 시대별 구원자 주장으로 이 시대에도 구원자 역할을 하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비유풀이만 보게 하고 특별한 장소, 특정한 사람에게 구원의 기대를 갖게 하는 논리로 접근합니다.

2) **안중희(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 ‘**기본교리 28**’이라는 교리서가 있다. 정통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특정한 교주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신부라 하면서 우상화한다. 예수님만이 아닌 특정 교주의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원받는 주장입니다.

3) **구원파(기쁜소식 선교회)** :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사용하며 자신들을 통해서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한번 구원 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려 하고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4)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원리강론**’이란 교리서가 있으며 인간타락을 ‘성적타락’의 결과로 보고 있다. 예수님의 초림을 실패로 규정하기에 교주를 재림 완성자로 가르칩니다.

5) **JMS(기독교복음선교회)** :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기반으로 만든 ‘**30개론**’ 교리서가 있다. 성경은 모두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있기에 특별계시를 받은 교주 자신만이 풀이가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선악과 사건 역시 통일교와 유사한 성적 타락 론으로 풀이합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며 확실한 길입니다.

분별의 영을 키우라

- 찬송: 435장(나의 영원하신 기업)
- 성경: 갈라디아서 2:4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이김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롬 8:37, 요일 5:4-5). 이것을 알기에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이단들을 통하여 성도를 미혹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 바로 알고 대처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단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단은 가만히 들어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다서에도 그렇게 전합니다(유 1:4). 그래서 사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광명의 천사(고후 11:14)로 가장을 하고 들어오기에 더더욱 미혹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그래도 이단은 미혹하는 자(요이 1:7)요, 사나운 이리(행 20:29)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이단은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틈을 주지 않는 것(엡 4:27), 곧 약점을 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하와의 약점을 파고 들었듯이(창 3:1) 기회만 되면 성도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의 약점을 파고 들려합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든지, 성도 간에나 교회에 대해 불평불만을 조장하여 분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엡 6:16-18).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및 성경공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는(히 10:24-25)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단에게 미혹될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이단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사탄의 종이 되게 하고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단(異端)은 말 그대로 끝이 다릅니다. 결국은 멸망합니다(벧후 3:16). 그러므로 이단들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기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기회로 승화시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한줄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 바른 생활, 건강한 교회 되어 그 어떤 이단의 유혹도 뿌리치고 이기는 믿음의 사람, 교회되게 하옵소서.

■ 기도회 둘째날 참고 자료

제31회 총회에서 결의된 이단

■ 감리교회에서 결의된 이단

1. 세계복음화전도협회(류광수 다락방)
2.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회)
3.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4. 여호와의 증인
5.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몰몬교)
6.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안증회 - 안상홍증인회)
7. 구원파 - 권신찬, 유명언계열(기독교복음침례회 - 한국녹색회)
- 이요한 계열(대한예수교침례회 - 생명의말씀선교회)
- 박옥수 계열(대한예수교침례회 - 기쁜소식선교회)
8. 기독교복음선교회(JMS)
9.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
10. 전능하신 하나님교회(전능신교, 동방번개파)

■ 예의 주시해야 할 단체

1. 베뢰아 아카데미(서울 성락교회 김기동목사)
2. 큰믿음교회(변승우 목사)
3. 만민중앙교회(이재록 목사)
4. 평강제일교회(박윤식 목사)

■ 대학가의 이단들

1. 국제청소년연합회(IYF 박옥수 구원파): EBS 영어말하기대회, 글로벌캠프,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등을 통한 활동
2. 기독교 베뢰아 교회 연합(서울성락교회): CBA란 이름으로 활동한다.
3. 다락방(세계복음화선교회): DCM
4.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위장동아리들을 만들어 활동한다.
5. 신천지: 공식적인 동아리보다는 일대일로 접근해 포교활동을 한다.
6. 통일교: 원리연구회와 월드카프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 찬송: 323장(부름받아 나선 이 몸)
- 성경: 요한복음 21:15-17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고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목자가 참된 목자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양을 먹이라” 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세 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세 번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양을 먹이는 일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곳에는 참된 양육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목자가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고 대신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거짓 목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목자들에게 최고의, 최상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한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거짓되거나 절반의 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참되고 온전한 사랑으로 양육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목자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어떤 자세로 양을 양육해야 하는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함으로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의 말을 설교하며 내 양을 먹이기를 원한다면, 지옥과 사탄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에 대항해 일어설 것이고, 너는 네 육신과 생명과 재산과 명예와 가진 모든 것을 소비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며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설교하며 양을 양육하기 시작했다가 이리들이 침입한다면, 너는 돈 받고 일하는 삿군처럼 도망갈 것이다. 네가 만일 양을 위해 생명을 걸지 않고 양을 이리에게 넘겨주려 한다면, 오히려 설교와 양육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우두머리에 서야 할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로 수치를 당하게 되고, 양들에게는 목자가 없었을 때보다 더 해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양을 양육하는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목자들의 외적인 모습과 외적인 능력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실 뿐입니다.

■ 한줄 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말씀 전하고 양육하는 주님의 진정한 목자와 설교자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 및 신학생 포교를 위한 이단 활동

■ JMS 대학가 포교활동 활발해 각별한 주의 필요(현대종교 2017년 4월호)

정명석씨의 출소를 앞두고 JMS 청년들의 포교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JMS청년들은 “더 많은 사람을 모아 주를 맞이하자” 라는 의미로 대학가 안팎에서 다양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장 동아리 활동뿐 아니라, 최근에는 대학가 안에서 “장학금 잘 받는 노하우”, “메이크업 특강” 등 대학생들의 관심사를 이용하는 포교활동도 이어지고 있어 대학가 내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IYF의 최근 동향(현대종교 2017년 8월호)

기쁜소식선교회와 관련이 있는 IYF의 포교활동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해운대에서 진행된 IYF의 월드캠프에는 세계 50여 개국 대학생 4000여 명과 20여 개국 청소년부장관, 30여 개국 50여 명의 대학 총장이 대거 참여했으며 해외에서 진행된 월드캠프는 2015년까지 약 70개국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인드 강연은 올해만 해외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잠비아 키트웨에 위치한 교육기관 및 정부청사, 기업의 임직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위한 영어말하기대회가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교 내에 동아리로 활동하는 굿뉴스코해외봉사단의 해외 파견과 굿뉴스코 페스티벌 공연을 통한 포교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럽의 구원파(현대종교 2017년 9월호)

현지 청소년과 청년대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의 활동이 20여 거점 교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런던과 프라하 등 유럽전역을 돌며 월드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대학교에서 IYF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생명의말씀선교회(이요한)도 성경세미나를 중심으로 유럽 11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유병언 구원파의 활동도 오랜 기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유병언의 자녀들이 영국 런던에 자주 나타난다는 제보도 있다.

■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이단들(현대종교 2017년 9월호)

전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한 한국이단들의 미혹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교회보다 더 월등한 조직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현지 정치권과 언론과 문화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분류된 단체들이지만, 해외에서는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위장한 양의 옷을 입고 합법적인 대규모 미혹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단대처를 위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글로벌이단대처네트워크’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 활동을 시작하는 하나님의교회 청년들(현대종교 8월 31일)

캠퍼스에 하나님의교회 청년들이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캠퍼스 이단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대학에서 활동 중인 IYF, 동아리나 동호회를 사칭하고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신천지, 모델, 아나운서, 승무원, 의전단 등을 권유하는 JMS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가판대를 설치하거나 「파수대」, 「깨어라」를 나눠주는 여호와의 증인, 월드카프라는 단체로 활동하는 통일교,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몰몬교 등의 단체가 활동한다.

■ 경기대학교에 등지 든 BOM(현대종교 8월 31일)

경기대학교, 하나님의교회 동아리 가등록 통과



▲경기대학교 주변에 설치된 BOM 동아리 활동 홍보 현판

경기대학교에 BOM이라는 하나님의교회 동아리가 가등락을 마쳤다.

BOM은 Bible Of Mother의 약자다. BOM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사랑, 희생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기독교동아리라고 단체를 소개한다. 성경세미나 개최, 거리정화운동, 인근 초등학교 인성교육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며, 모든 활동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수반되어 있다고 밝힌다. 다른 아닌 하나님의교회에서 하늘어머니로 믿는 장길자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아리 소개를 듣는 관계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소개하는 부분만 수용하고 판단할 것이다.

경기대 주변에는 하나님의교회 포교활동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여럿 발견된다. 10여 명의 남녀가 짝을 지어 태블릿PC를 보여주며 포교를 시도하는 모습도 있었고, 학교 주변 자취촌에서 40대 남성과 20대 학생이 함께 짝을 지어 다니며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경험한 사례가 있어 활동이 빈번한 상황이다.

하나님의교회는 캠퍼스에서 30~40대 여성들이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며, 동영상을 보여주고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방법으로 포교해 왔다. 청년들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올해 들어 하나님의교회 대학생 활동 소식의 노출 빈도가 높아졌다. 지난 3월에는 하나님의교회 대성전에서 ‘2017 전국 대학생 개강예배’를 진행했고, 최근 ASEZ(하나님의교회 대학생봉사단)라는 이름으로 몇몇 대학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 보도됐다.

위로하라

- 찬송: 304장(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성경: 누가복음 15:32

가족이라는 구성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최소 신앙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처음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야기이고, 노아의 방주가 가족단위로 보호를 입는 이야기였듯이 믿음의 출발을 시작한 아브라함 또한 가족의 단위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만큼 신앙을 말함에 있어 가족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관련된 사회적 피해소식은 나날이 들려오고 이단에 빠진 자녀를 구하고자 1인 시위를 하는 가족 분들의 얘기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 기약도 없거니와 다시 돌아오는 것 역시 그리 흔한 것은 아니기에 막연한 시간 속에 가족은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 이단에서 돌아와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여도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에 빠지기는 쉬워도 다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도 이들을 보는 시선은 의심과 불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싸움인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잠시 잘못된 판단으로 먼 길을 떠나 빈 몸으로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족으로서, 함께 하는 이로서의 자세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많은 후회와 상처를 받고 돌아온 탕자에 대해 아버지는 그 용기와 지쳐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다 할 책망이나 비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불러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며 자녀로 품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던 탕자의 형에 대해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탕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탕자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 동안 ‘너는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그를 품어야 할 이유를 말씀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족으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가족으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금 돌아온 이들이 다시금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단이 좋아서가 아닌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냉소적 반응을 도저히 견디기 어려웠다는 것인데,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다시 돌아오는 이들을 품고 위로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 한줄 기도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돌아오는 이들을 주님과 함께 품게 하소서.

이단들의 포교 전략

신천지가 이단인건 다 안다? 그럼 왜 이단인가?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라 해서 ...

물론 이것 보다 큰 이유는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실에 대해 거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수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이단에 빠지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시간 그들의 포교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신천지는 세력이 적었을 때에는 작은 교회를 통해 경험을 쌓아 포교에 주력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중대형 교회에 잠입 지속적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들의 포교법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가 다르지 않다는 기본이 있다. 그들은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 단절 및 불만 증대 등으로 교회를 흔들어 교회 안에 불신을 키워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거나 교회에 불만을 키워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

이단은 크게 위장 포교와 공개 포교라는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한다.

1. 위장포교법

교회나 성도에게 잠입한 후에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한 후, 목회자를 흔들어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 시킨다.

1) 위장포교로 교회를 공략할 때 (소형교회일 경우)

그물로 잡을 물고기(성도)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누구를 잘라내고, 이간질 시켜야 교회가 흔들릴지 또 더 나아가 목회자를 무너뜨릴 방법과 산 옮기기가 가능한지를 파악한다.

목회자의 관계가 친밀한 경우나 목회자 가족일 경우 이간질을 이용해 왕따를 만들거나 주변과 관계를 단절 시키고 반대로 자신들의 포섭이 가능할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략을 하며 행정적 약점이나 이성 등 악성 루머를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던져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로부터 돌아서게 만든다.

사실 대부분 소형 교회의 경우 목회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사례비는 커녕 오히려 부족분을 자비량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재정의 사용이 불투명하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횡령 등 법을 악용하여 공략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이단들의 단골 공격 대상이다.

이처럼 작은 교회의 경우 이단들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목회자의 실수를 과대 포장하여 적반하장 격으로 목회자를 고소, 고발하는 방법을 통해 성도들을 빼앗고 교회를 깨트린 후에 도리어 협박하며, 자신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교회를 가해자로 만들어 상황을 정리한다.

2) 위장포교로 교회를 공략할 때 (중대형 교회일 경우)

중대형교회에서도 기본적인 공략법은 비슷하다. 작은 교회에서 학습된 경험을 이용하긴 하나, 작은 교회에 비해 규모가 크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교회를 이탈하지 않고 몰래 남아 행동하며 전도 특공대 등 교회에 열심인 사람들을 포교, 끊임없이 교회를 비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교회 내에 불만과 불신을 키워, 자신들의 세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방식은 기존 산 옮기기보다 훨씬 큰 피해가 발생하지만, 교회는 정작 빠져나가는 사람만 쳐다볼 뿐 추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독버섯과 같은 신천지인들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신천지 및 이단의 세력들을 매우 좋아 하는 방법이다.

3) 목회자와 사모 목회자의 가정을 공략하기

① **신분 세탁** 감리교회가 아닌 장로교에서 종종 사용하는 방법으로 신천지 교회가 정상 교단에 편입해 오는 방법으로 교단 내 교류를 통해 합법적인 위장 교회로 성도들을 미혹한다. 군소 신학 등 비인가 신학교를 공략 신천지인을 위장 입학 하여 정상 교단 목사처럼 보이는 신천지 목사를 배출한다.

② **목회자 가족에게 접근하기** 사실 이 부분은 우리와 크게 연관되지 않지만 지금부터 소개 되는 방법은 감리교회도 타격을 입는 방법이다. 이들은 비전교회 사모 또는 목회자 가족에게 접근 끝까지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교회와 목회자 사모 주변에 머무르며 추수꾼 및 복음방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실제로 비전 교회 목회자와 사모의 경우 외롭고 힘들다는 점이 약점으로 사용되 포교의 도구가 되고 있다.

2. 공개포교

요즘 들어 신천지의 공개 포교 방식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이단이 공개포교로 전환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는 이탈자들이 급증할 때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세력이 굳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고 생각하거나, 더 이상 비공개로 포교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대부분 공개적으로 늘어난다.

1) 노이즈 마케팅을 위한 공개포교

- ① HWPL이라는 이름으로 신천지 만국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세를 과시.
- ② 신피연을 보고 몰타기(신천지 용어)하는 강피연(강제 개종 피해자 연대)
- ③ CBS 본사 및 명성 교회 등 대형 교회를 둘러싸고 땅 밟기 및 헐박하며 자신들의 세력 과시.
- ④ 거리공연 및 퍼포먼스 등을 이용

2) 이미지 마케팅을 이용한 공개 포교

- ① 사단법인 만남(대표 : 김난희),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사)세계여성평화그룹, 국제청년평화그룹
- ② 거리청소, 헌혈, 봉사활동, 독고노인 방문, 세계평화운동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

3) 인터넷 공개포교

- ① 인터넷 포교 전담팀을 이용하여 홍보성 글과 광고 지식in 등의 자문자답
- ② 기성교회 비방 및 목회자 성도 비판
- ③ 신천지 비방 글 헐박 및 고소 고발 블라인더 처리 요청
- ④ 인터넷 방송 및 영상을 통한 교리비교 등을 이용

4) 교육과정 수료를 위한 공개포교

신천지 내에 전도사, 목사 등 직분자 교육과정 중에 답력을 얻게 하기 위해 신천지임을 자처하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포교.

5) 사이다 교리 비교 등 자신들의 교리가 우세하다는 방식을 알리기 위해 무리를 지어 거리에서 홍보.

함께 해 주세요

- 찬송: 500장(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 성경: 전도서 4:12

얼마 전 이단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목사님을 통해서 “이단들은 감리교인들을 밥으로 생각한다.” 는 말을 듣고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감리교인들이 이단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신앙관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감리교회가 전략적으로 이단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단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 개인이 이단의 공격을 받으면 그것을 개인적인 일이나 개체교회 일로 치부하는 것이 오늘 감리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말끔한 정장 차림의 안식일교회 전도자들이나 여호와증인 전도대가 두 세 사람씩 짝지어 포교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만 보아도 이단의 포교 활동이 얼마나 조직화 되어있고, 전략적으로 기성 교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도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합니다. 간혹 방송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이단의 폐해에 대해서 보고 들어도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까운 성도들을 이단에 빼앗기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단의 포교 대상에서 나와 내 가족이 예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더욱 이단의 밥이 되어 언제 먹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모든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가족과 성도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심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이들의 상황을 보면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집니다. 이단의 전도자들이 늑대의 발톱을 숨기고 양의 털을 쓰고서 친절함을 무기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독을 달래주고 생활의 필요로 채워줌으로써 마음을 사서 포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선한 전략도 같아야 합니다. 우리도 사랑과 친절로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지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두 세 사람이 함께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속회나 선교회 또는 봉사자들이 두 세 사람씩 짝을 지어 성도들을 돌보고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늑대와 같은 이들에게 내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한줄 기도

주님, 우리가 소외된 성도들과 함께 하여 그들을 굳게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게 하소서.

감리교회 신앙고백

1.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2.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4.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5.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음을 믿습니다.
6.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믿습니다.
7.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 됨을 믿습니다.
8.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돌아오라

- 찬송: 310장(아 하나님의 은혜로)
- 성경: 누가복음 15:29-32

탕자의 비유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성경 속에 탕자는 세상에 꿈을 찾아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그가 보기엔 자신이 생각하는 그 곳이 나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집보단 훨씬 더 나은 거란 생각에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아버지의 집인 가족의 품을 떠날 정도로 결단을 하면서까지 그 곳이 더 좋은 곳이라 착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집을 떠나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혹에 빠져 그들이 말하는 그 곳이 더 좋은 곳이라 착각하며,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다. 집을 떠나는 탕자의 마음에는 집을 나가면 더 좋은 것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한 것처럼 오늘날 이단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집을 떠나 고생을 하며,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마저 주는 사람들이 없게 되자, 그렇게 되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가 좋았음을 깨달았지만, 종교적 세뇌에 빠진 자들은 이 역시도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와 같은 악질적인 이단에 소속된 이들 가운데 심지어 자신들의 교리가 무너져도 회심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심어줌으로 인해 이단교리가 무너져도 교회를 보면 차라리 여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설사 신천지에서 나왔다 한들 교회로 되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 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는 큰 아들이 동생을 찾아 주었으면, 안아 주었으면 하고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자기 일만 하며 동생을 비난하고, 동생이 돌아와도 맞이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동생은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갔고,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재산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도 교만인줄도 모르고 오직 여전히 내 것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회복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밖에서 볼 때, 대 사회적으로 정직하다, 믿을만하다 라는 신뢰성을 회복해야하며, 안으로는 신앙의 본질인 거룩성을 회복해야합니다. 또한 이단 세력에게 조정을 받고있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제는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 봐 주고,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 한줄 기도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넉넉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따스함을 더하여 주소서.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신흥 사이비 이단집단들이 교세 확장을 위하여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층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제 집 안방 드나들 듯이 드나들며 공격을 하고 있고, 심지어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까지 침투하여 미혹시키는 등 한국교회를 농락하고 있고, 또한 우리 감리교회에 어지럽히고 있다.

이에 이단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위한 교육을 위해 종교개혁주일 다음날부터를 이단경계주간으로 지키자고 제31회 총회(2014년 10월 30~31일, 광림교회)에서 결의하였다.

제32회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 교회적으로 어떻게 이단에 대하여 준비하고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은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기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벧전 1: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였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은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단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게끔 유도하여 구원이 마치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으로 믿고 또 이간 당하기 때문이다.

1. 미혹을 받지 않으려거든 일단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특정 구절이나 비유 해석에 갇혀있지 않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2. 교회 밖의 성경공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신천지는 전략적 포교 일환으로 우연을 가장한 자신들의 성경모임에 참석하게끔 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며, 특히 목사님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하는데, 이것이 문제이다. 성경공부를 원한다면 담임 교역자와 상의하고, 검증되지 않은 곳에는 절대로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3.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신천지의 최대 목표는 기존 교회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이다. 담임 교역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거나 혹은 교회생활에 열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접근하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 한다.

4. 기성 정통 교단, 기성 교회, 목회자들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5. 신천지발행 전단지, 신문(천지일보), 인터넷의 검증되지 않은 문화행사 등을 주의해야 한다.

■ <신천지문제> 개별교회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1. 목회자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신천지에 대한 목회자들의 반응은 주로 ‘내 교회 교인을 빼 가면 어찌나?’ 하는 걱정이 우선이다. 먼저 신천지에 속아서 넘어간 교인에 대한 동정심이나 목회자로서의 책임감은 현재 교계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맡긴 양을 이리에게 빼앗긴 목자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할 때에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는 진심어린 반응이 나오게 되고,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2. 신천지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천지>가 반기독교적일뿐 아니라 반사회적임을 인지하였고, <신천지>가 거짓과 세상의 정치권력과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파헤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기독교인 20만명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으며, 이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선봉이 되도록 만든 신천지를 하나님이 제어해 주시고, 그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3. 신천지의 실태에 대해 목회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회자들이 신천지에 대해 갖는 생각이 ‘내 교인만 안 빼 가면 된다.’ 라는 생각 정도로는 신천지에 관한 대응이라 할 수 없다. 적어도 2~3일 정도 신천지를 전문으로 대응하는 사역자들을 통한 교육시간을 가지므로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는 준비를 해야 한다. 단 몇 시간 정도의 강의만으로 신천지의 실태 파악이나 거짓위장을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4. 교인들에게 신천지의 포교방법과 분별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알려주고 접근을 대비하도록 한다.

‘신천지를 주의하자’ 는 구호는 이미 수년전부터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세는 계속 증가중이다. 이는 <신천지>가 그러한 경계심조차 ‘섭외’ 의 과정으로 활용하는 ‘모략’ 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어떤 거짓말까지 하면서 ‘섭외’ 하려고 접근하는지를 알아야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비하게 된다. 또한 ‘인간적’, ‘신앙적’ 측면으로 접근하려 할 때에 그것을 인지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설교 시간 중에 언급하고, 소책자를 제공받아 교인들에게 배부하면서 교회 내에 비치한 자료를 새 신자가 올 때마다 주는 것이 좋다. 신천지는 ‘새신자’ 를 가장하여 전도 받아 끌려온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회 내에 만일 이러한 분별력이 없다면 교회는 점차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5. 교회 내에서 올바른 성경공부를 제대로 교육하자.

신천지의 성경공부는 ‘사전에 충분한 신뢰감 획득’ 과 ‘반복에 의한 세뇌’ 와 ‘군중심리 조장’ 으로 특징지어 진다. 이것이 전제가 될 때에 <신천지>의 단어풀이격인 ‘비유풀이’ 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교회 내의 올바른 성경공부반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보거나 들을 때에 이상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교회에서 충분한 성경공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보아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미혹되어 버린다. 신천지의 공세를 오히려 교회들이 ‘성경공부’ 를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보자. 작은 교회일수록 성경공부반을 담임목사님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자. 이것은 교회의 일꾼을 양육하는 과정이므로 목회자의 일을 분담할 평신도 사역자를 확보하는 부수적 혜택을 얻게 된다.

6. 하나님이 신천지의 궤계를 무너뜨릴 때 <신천지> 교인들이 돌아갈 곳은?

1) 신천지 교인의 교세가 20만 명이라고 할 때에 출석교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 교회의 4%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신천지의 종말론적 사상이 현실화되지 않아 비로소 신도들이 ‘허구성’ 을 깨달았을 때에 한국 교회는 과거의 자신의 교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이들은 신천지에서 세뇌된 사상으로 인해 기성교회에 대해 왜곡된 사고를 갖게 되었으므로 이것을 교정하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새로운 교주를 따라 여전히 중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2) 신천지에 빠졌던 교인들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신천지>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신천지>의 실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교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도 막연히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경계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품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신천지 교인들이 영생불사하리라 믿고 있는 이만희 교주는 이미 고령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중이다. 교회들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20여만명의 신천지에 빠진 기독교인들이 대혼란에 빠질 때에 이들을 회복시킬 기회를 놓치게 된다.

3) 신천지는 전국적으로 지역별 12지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만희 사후 혼란에 빠질 신천지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교정과 회복 기능을 갖춘 교회를 구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집례자 : 교역자

[하나님께로 모임]

- 전 주 반주자
 * 입례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함께
 * 예배로 부름과 기원 집례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라도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96:4-6)

은 우주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이단경계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의 성소로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경배찬송 8장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다함께
 * 말씀교독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앙고백 다함께
 * 삼위영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다함께
 오늘의 기도 장로/권사 중에서
 주님의 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 다함께

[말씀과 결단]

- 성경봉독 권사/집사
 찬양 찬양대
 설교자 :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숫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 141:3)
 회 중 :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시 19:14)
 설교 설교자
 합심기도 집례자
 1. 감리교회 교인이 영적으로 깨어 이단을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2. 이단에서 개종한 이들과 이단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3.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과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감사와 응답]

- 봉헌찬송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다함께
 봉헌기도 말은이
 평화의 인사 다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세상으로의 파송]

- 교회소식 집례자
 * 찬송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다함께
 * 파송의 말씀 다함께
 집례자 : 십자가 군병 되어서 수많은 원수들의 유혹과 미혹에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 되기를 바랍니다.
 회 중 :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 축도 목사
 후주 반주자

(* 표시한 곳은 일어선다)

주님의 군사처럼 에베소서 6:10-1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속한 감리교단에서 일 년에 한 번씩 지키는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단에서 정한 이단 경계주일을 맞이하여 이단은 어떤 것이며, 이단이 주는 심각한 피해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바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이단 경계주간으로 정하여 지키면서 이단에 대하여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이단을 알고 이단을 공부하는 시간들에 많이 참석하셔서 이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힘을 기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우리는 이단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단(異端)이란 단어는 한자로 쓰면 다를 이(異)자에 끝 단(端)이란 글자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르기에 우리는 정말로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국 백성으로 시작했지만 이단에 미혹이 되면 나중에는 지옥 백성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이비(似而非)란 말입니다. 사이비란 말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가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모두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 결국은 성도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을 말하려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어떤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몇 가지 기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도신경의 고백 여부로 우리는 이단을 분별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정통교단들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물몬교, 박태선 천부교, 안식교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정통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리를 믿는데 반하여 이단들은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통교회에서 십자가 교리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인간은 멸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의 형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죄의 죽임을 당하셨고, 인간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십자가의 교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 정통 교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들이 믿는 교주를 놓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셋째로 정통교회에서는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 성경이외의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66권의 성경이 정경이 됨을 부인하고, 66권에서 성경을 몇 권을 빼야 한다는지 66권의 정경 이외에 다른 책을 성경에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이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단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성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성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비방하거나 기성 교회가 부패했다고 하면서 기성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성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게 하고 자신들만이 바르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우상화하거나 신격화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단의 교주에게 그들은 재림 예수 혹은 말세의 종 등 여러 가지 신격화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과 직통한다’ 혹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맹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은 정통교회에서 믿는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일신을 주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양태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자와 성령이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단에 속한 이들이 행하는 행태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정통교회를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목회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회에 가기를 싫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도를 쓰러뜨리려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간교한 계략인 것입니다.

물론 일반신자들도 생각하기를 교회가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교회가 다 썩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교인들과 목사를 이간질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개인의 신앙을 중시하면서 모든 정상적인 교회들이 함께 알고, 함께 믿고 있는 신학과 교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신학이나 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교회가 오랫동안 이해하고 받아들여 온 객관성을 무시하고, 이성적이고 평범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교회가 가르쳐 온 교리들과 신학을 무시하고,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편협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내세워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자기들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정과 교회를 보면 이단의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성도들이 이단사상에 미혹이 되어서 그 사상에 물들게 되면 성도는 그들의 영적인 노예가 되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이 이단에 미혹이 되면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업을 전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이단에 미혹되면 부부간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경우는 남편이 모르게 혹은 아내가 모르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갖다가 이단 집단에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미혹이 되면,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은 무섭게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여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인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 그러면 이단으로부터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감리교회와 교단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로서 이 자리에 선 담임 목사인 저를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많은 허점과 실수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리교단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자신들의 목사가 지향하는 목회적인 관점과 사역들이 옳고, 건강하며, 바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이단의 미혹을 받게 될 때에 단호하게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30여년의 한국 감리교회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감리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는 여전히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서서 교회로서의 제 자리를 지켜 온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엡 6:10)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단을 배격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든든하게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한 군사들처럼 무장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공부반이나 교리공부반에 출석해서 신앙적 지식을 쌓아가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공격하게 됩니다. 이단은 든든히 무장이 되어있지 않은 약한 지체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교회에 불만이 가득한 세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단 세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키워나가십시오

셋째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웃한 성도들과 거룩한 사귄을 가지며, 자기가 속한 부서에서 주님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소외된 이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를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 매일 매일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한 신앙으로 바른 교훈을 부단히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이단에 속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단세력이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교회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말씀을 읽어 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단을 대적하는 길

베드로후서 2:1-3

사랑하는 감리교회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이단 대책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지신 뜻과 계획을 되새기며 경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긍지와 자부심처럼, 웨슬리 목사님을 창시자로 하는 우리 감리교회는 위대한 전통과 유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실로 그 교리와 실천에 있어서 감리교회는 진정 가장 본이 되며 복음적인 참된 교회를 이 땅위에 세워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와 같은 역사를 망각하고 한국 감리교회의 일부 현실이 혼탁과 부패의 물결에 흔들리고 있음을 애통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혁과 갱신을 향한 열망과 소원은 불붙어 다시 새로운 감리교회를 일으켜 세우려는 부흥과 정화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앙의 타오르는 빛난 선현들을 뒤쫓아 오늘날 감리교도들은 그 본분을 되찾기에 더욱 힘쓰고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 수많은 이단이 이 땅에 창궐하여 주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며 성도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교회의 긴 2천년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이단세력들은 계속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훼파하며 간교한 마귀의 도구들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극히 주의하면서 올바르게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어심과 분별력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감리교회 전체가 깨어 기도하며 문제를 직시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먼저 우리는 **이단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아야 하겠습니까.

상대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바르게 알지 않고는 싸워 물리치거나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란 정통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교회의 긴 역사 속에서 정통과 이단을 가려내는 일, 정통을 지키는 어렵고 엄청난 과제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통이란 정통적인 교리를 말합니다. 신약성서 디도서 2:1에서 우리는 바른 교훈 혹은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는 권고를 읽게 됩니다. (딤후 4:3 참고) 이미 신약성경의 초대교회 시대에 그릇된 거짓 교훈 혹은 지식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등장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거짓된 가르침과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에 반대하여 정통 교리, 곧 예수님과 사도들의 바른 교훈을 지켜야 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라는 엄중한 경고들 속에서 거듭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말씀, 특히 예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통은 바로 교회가 믿는 신앙, 고백하고 실천하는 신앙을 교리로 삼아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것입니다. 반대로 이단이란 그것에서 벗어난 그릇된 거짓 교훈이 되겠습니까. 이미 구약시대를 볼 때에도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상과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곤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미 제자들에게 거짓 목자, 선지자들의 출현을 경고하셨고, 이리들처럼 양떼를 홀고 파괴하는 세력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의 교회에서도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등 신약성경의 여러 서신들에서 보듯이,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 많은 주의와 경고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서신인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멸망을 가져올 이단들을 은밀하게 끌어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부인하고 호색, 방탕, 탐욕 등의 모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며 의와 진리의 도를 비방 받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단의 특징은 그 잘못된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 행실에서 나타납니다.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단은 마귀의 꾀계를 따르며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무법과 음란, 불경건한 행실은 육체를 따라 마귀적인 더럽고 악한 정욕을 통해 어두움과 죄를 낳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빛의 자녀들을 환하게 빛내는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인격과 삶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단은 이성 없는 짐승의 형상(벧후 2:12, 유 1:10)을 드러내는 무리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이러한 정욕적인 상태를 짐승과 마귀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성도는 바른(정통) 교훈,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와 진리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이단은 불의를 일삼으며, 특히 쾌락과 유혹에 빠지고 속임과 거짓으로 가득하며, 미혹되어 허탄함을 추구하는 무리들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단의 특징을 아주 잘, 분명하게 설교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단이 기독교인에게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멸망의 종인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굴복 당하여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된 자들입니다(벧후 2:20). 진리와 의의 도를 거룩한 명령과 함께 받은 후에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그것을 알지 못한 것보다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썩은 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운 것과 같다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벧후 2:22).

이와 같이 이단은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을 대표하는데, 그 교리뿐만 아니라 행실과 삶에서도 분명히 최악의 징표와 마귀의 지배를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교묘하고 그럴 듯하여, 마치 가장 좋은 말들로 포장한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기한 기적과 육체적, 외적 현상들을 통해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분명하게 거짓과 오류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이 시대의 풍조와 사조를 불어넣는 경우가 오늘날 영향력 있는 목회자와 교사(신학자) 속에서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거기에 큰 함정과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중 일부분을 자기들이 좋은 대로 맞추어 멋대로 짜놓은 교리와 주장들을 펼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감리교도들은 **어떻게 이단에 대처하며 굳건히 바른 신앙과 가르침의 토대 위에 설 것인가**를 상고해 봅시다.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딤후 4:13).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철저히 공부하고 깨닫고 익혀 감리교도들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으로 삼는데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웨슬리 목사님은 항상 무엇보다도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는데 경건한 영성생활의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규칙과 원리로 하여 거짓된 교훈들의 미혹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듯이, 모든 이단은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성령의 비추이심을 통해 끊임없이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 이단의 그릇된 도전과 공격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극히 미묘하게 성경을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리교 성도들은 **성경을 전체로 읽고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성경공부와 속회 등을 통해 신자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한 부분이나 특정한 주제들에 국한해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 주제로 통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한 삶 즉 성화의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인 원죄, 회개, 믿음에 의한 의롭다 하심, 새로 태어나는 중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목표가 되는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구원의 순서에 따라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길에 의거하여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바르고 성숙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흔히 매우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주목, 집착하면서 전체적인 안목을 놓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직통계시를 주장하면서 성경을 경시하거나 그 밑에 두며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이단의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성숙한 경험 많은 영적 멘토나 목회자의 영적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나친 개인적, 주관적, 신비적 해석을 경계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을 비교, 대조하면서 정독하고 연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리는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를 일으키면서 강조한 “오직 성경”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영적인 심오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 성도들은 많은 기도와 연구와 경험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이단에 대처하는 길은 단순히 많은 성경에 관한 지식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과 가르침들을 분명히 드러내어 우리 교회의 바른 해석과 가르침으로 무장해야만 신앙의 타락이나 파선에서 성도들이 건짐 받고 보호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단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 **감리교회나 기타 정통교회들의 교리와 가르침**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감리교회는 교리를 중시하지 않고 생활과 실천에만 관심을 주로 기울인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감리교회는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와 복음적인 가르침에 어느 다른 교파 이상으로 확고히 세워져 있습니다. 참으로 회개함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거룩한 성화와 완전한 사랑의 삶을 목표하는 구원의 길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감리교회만큼 위대한 역사와 그 영향을 남긴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교리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데 치우치지 않고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신자의 삶과 영성에서 실현되었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형태를 통해 꽃피우고 열매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생명 있는 충만한 신앙이 곧 전도와 선교와 이웃 사랑의 실천,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낳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 속에 거듭 증거 되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현재 한국교회를 위협하면서 날로 창궐하고 있는 **이단들의 실체를 바르게 파악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 위험을 경계하고 물리치는데 반드시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경의 사도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후 교회의 2천년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에서도 그랬습니다. 방심과 무관심은 금물입니다. 교회마다 이단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함이 필요합니다. 감리교회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동시에 감리교회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공부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적 진리를 우리 감리교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데 분발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온갖 거짓된 교훈과 미혹하는 꾀계들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흠어버리고 파괴하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덮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단들은 잘못된 신비주의, 열광주의 혹은 광신주의를 특징으로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정통 교리와 실천과 체험을 “성경적인 기독교”로 세우면서, 이와 같은 사이비 기독교의 형태들과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열심과 열정은 좋을 수 있으나 바른 지식, 진리의 도에 따라 그 열심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리교회는 이단의 잘못된 신비주의 대신 바른 성령의 체험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것을 중심으로 건전한 성령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바른 성령운동에는 참된 회개와 성화의 성숙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삶의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새롭게 갱신되며 부패와 타락은 개혁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감리교회는 형식주의와 합리주의의 위험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리와 예배만 있다고 참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형식주의에 빠진 신자들을 노립니다. 그들 마음과 삶 속에 참으로 그리스도가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항상 내주, 임재 하셔서 바른 분별력과 인도하심을 계속 허락할 때에야 이러한 형식주의,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주의는 교회의 큰 적입니다. 이성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는 반(反) 이성적이지 않지만 이성의 한계와 지배에 속박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성을 초월하고 오직 믿음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모시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특히 이단들은 많은 이론, 논쟁을 이성적으로 조작, 고안하여 신자들을 교란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른 이성과 판단을 적절하게 사용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궁극적인 진리는 이성을 초월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성숙한 영성훈련이 교회마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단은 우리의 교회에 큰 환난과 시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그와 같은 환난과 고난의 시련 속에서 더욱 정금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초대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교회에서도 그렇듯이 순교와 고난의 영성을 낳았습니다. 사도들과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고 본받아 그것에 참여하는 거룩한 교회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점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의 특권이기에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잘못된 성공주의와 세속적인 욕심과 쾌락을 방치하는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인내하는 길이라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역설하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십자가와 고난의 징표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영광에 이르는 표시임을 거듭 증거 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제 이단들의 극성과 교회의 부패와 분열, 윤리적인 실패들을 통해 진실로 회개하라는 주님의 엄중한 경계에 귀 기울여야 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초대 교회의 고난과 거룩한 삶의 징표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되찾을 때인 것입니다. 악한 시대에, 최악이 만연한 마지막 날에 교회는 오히려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감동적인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행 20장). 거기에서 사도가 떠난 후 흉악한 이리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양 무리를 해치며 제자들을 미혹하여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그릇된 것들을 가르치는 무서운 일이 있으리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르친 진리의 교훈을 기억하여 지키며, 항상 거룩한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여 든든히 설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마찬가지로의 상황, 아니 더욱 더 간교하고 극악한 이단들의 공격들 속에서 감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기도로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삿 17:12-13 / 벨후 5:8-9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 존귀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역사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평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민 14:28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임을 말과 삶으로 고백하고 표현하여야 합니다. 즉 사도바울을 통하여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주신 고후 6: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의 말씀대로 살길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단대책분과 위원회에서 요청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단이 있음과 또한 그들에게 속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보태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이단에 이끌리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해선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삿 17장** 말씀과 **벨전 5장**의 말씀은 무엇이 이단이며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삿 17장 말씀을 보시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함은 오늘날로 보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라 해도 됩니다. 그러면 12, 13절 말씀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떠돌이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 하면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교회 등만을 이단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단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거짓 선지자' (마 7:15), '사나운 이리' (행 20:29),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갈 2:4),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빌 3:18), '발람의 길을 따름' (벨후 2:15; 유 1:11), '가만히 들어온 사람' (유 1:4), '가인의 길에 행함' (유 1:11), '고라의 패역을 따름' (유 1:11), '적그리스도' (요일 2:18), '거짓 선생' (벨후 2:1), '자칭 사도' (계 2:2), '자칭 유대인' (계 2:9), '자칭 선지자' (계 2:20), '사탄의 회당' (계 3:9) 등이라 하였습니다.

즉 이단은 **복음(나사렛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 이외의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행위(딤후 3:10)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 7: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2. (행 20:29)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 (행 24:14)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4. (행 28:22)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5. (갈 2:4)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6. (빌 3:18)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7. (딤후 3: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8. (벧후 2:1)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9. (벧후 2:15)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데도 그는 불의의 값을 사랑하다가”
10. (요일 2:18) “아이들이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1. (유 1:11)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삶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12. (계 2: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13. (계 2: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4. (계 2: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단(heresy)이라 하면 정통학파나 종파에서 벗어나 다른 학설을 주장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위해 제사장이 된 레위사람이나 미가 역시 이단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단적인 요소가 있음을 발견 할 수 있고 그런 이단적 요소를 던져 버리지 않으면 나도 이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이단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상반되는 거짓되고 허탄한 것들을 가르치는 종파를 말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이단으로 단정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장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인 성경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이단들은 전통적인 가르침인 성경 해석이 옳지 않다 하면서 자신들의 해석과 가르침을 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은 한 개인의 판단이나 견해가 아닌 공적인 교회의 대표기관의 신학과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삼아 해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여 1930년에 교리적선언과 1997년에 신앙고백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성경과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나누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이단의 특징은 《성경》의 내용에서 무엇을 보태거나 빼는 일이 많다.
- 둘째, 이단의 특징은 《성경》보다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다.
- 셋째, 이단들은 배타적인 행태를 많이 보인다.
- 넷째,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 다섯째, 이단들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단들의 형태는 사단 마귀의 행태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후 5:8-9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유혹하게 될지 모르며 그 유혹에 빠질지 모릅니다.

근신하여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경을 공부하자고 한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단 경계주일을 지키면서 이단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예방입니다. 이단에 대한 정보를 교인들에게 신속하게 전해 주시고, 이단은 멀리서 뿔 달린 귀신의 모습으로가 아닌 우리 주변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단에 빠진 이웃이나 가족 친지가 있다면 배척하고 치리하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기도하고 담임목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교회는 **근신하여 깨어 있는** 교회로 성경과 감리교회의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며 세상과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